

“5·18 계엄군 발포 직접 관여 안했다” 광주시민 가슴에 총질하는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연내 출간
5·18 최대 ‘미완의 과제’
발포 명령자 끝내 묻히나



전두환

년 10·26 사건으로 역사의 전환에 등장하게 된 이후 12·12 사태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재임기간 겪은 일들에 대한 비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고록이 출간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이 신군부의 최고 실세였다는 점에서 계엄군의 발포명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시점에서, 전 전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회고록의 내용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정 회장은 “신군부 최고 실세가 계엄군의 발포 명령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회고록이란 공과 모두를 균형 있게 역사에 남겨 후대로부터 평가받는 것”이라며 “사실 관계는 확인해봐야겠지만 거짓 해명으로 잘못을 감추는 게 회고록의 출간 목적이 아니다. 전씨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호남예술제 무용 입상자 명단 ▶16면



신 팔도유람-가야 테마파크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년 묶인 도심공원 땅 민간 사업자가 개발

50만㎡ 이하 송정·신촌·봉산·수량·송암·신용·마복 공원 7곳
사업자가 부지 70% 공원 조성해 기부채납... 나머지는 택지 개발

도시계획상 20년 가까이 묶여 있던 광주 도시근린공원이 민간공원 방식으로 개발된다. <관련기사 3면>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해소 방안으로 도시근린공원 11곳을 사업자와 투자자가 참여하는 민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께 사업자를 공모,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

다. 해당부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부지로 정해놓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은 땅이다. 시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1차 대상지는 송정·신촌·봉산·수량(이상 광산구), 송암(남구), 신용(북구), 마복(서구)도시근린 공원 등 7곳으로, 면적이 50만㎡ 이하 소규모 지역이다. 전체 공원 면적은 966만㎡이다.

단, 100만㎡가 훌쩍 넘는 서구 중앙공원, 북구 중의공원, 일곡공원, 영산강대상공원 등 4곳은 국가지원을 받는 국가공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2017년까지 이 계획이 실현되지 않으면 해당 공원들도 민간 개발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민간공원 개발방식은 사업자가 대상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를 아파트 등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일정 부분 녹지를 확보하고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해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해법이다. 근린공원부지는 대부분 민간이 소유, 토지처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다.

시가 민간공원 개발에 나선 것은 헌법합치 판결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오는 2020년 7월부터 20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용도가 자동해제되는 이른바 ‘일몰제’에 따른 조치다.

이번 민간공원 조성 대상지에 포함된 7곳은 토지를 사들이는데만 2조8000여원이 필요해 사실상 광주시가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는 곳이다. 결국, 그대로 부지를 방치하면 공원이 통째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민간공원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부산, 인천 등 7개 지자체도 이 사업에 착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전체 공원부지를 사들일 여력이 안되는 처지에서 민간개발 방식마저 포기하면 아예 공원 부지 전체를 일몰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나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청년 구직자 간절한 눈빛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찾은 청년 구직자들이 신중한 모습으로 행사장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참여 기업의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강진·장흥·영암 ‘아름다운 상생’

강진·장흥·영암 등 전남지역 3개 자치단체의 상생 협력이 빛을 내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도권 시민을 겨냥한 장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스포츠 대회와 각종 지역 홍보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들이 소지역주의에 따른 과잉·중복 투자를 없애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등 전국을 대표하는 상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강진·영암·장흥군에 따르면 오는 28~29일 서울시장 앞 광장에서 공동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수도권에서 공동 운영 중복투자 없애고 효율성 높여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으로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한마음 254 농부장터’를 연다. 서로 연계해 있는 강진, 영암, 장흥 등 3개군 재경향우회가 후원하는 ‘한마음 254 농부장터’는 각 지역의 전통장날(장흥 2일, 영암 5일, 강진 4일)을 합친날로 ‘이(2)날 오(5)서서 사(4)세요’란 의미도 담고 있다.

이들 3개군은 이번 행사에서 지역 농·수·특산물을 시중가보다 10~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강진군은 착한 한우를 비롯한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81개 품목을, 장흥군은 표고버섯 등 64개 품목을, 영암군은 무화과 잼 등 55개 품목을 특별 할인가격으로 선보인다.

‘한마음 254 농부장터’ 개설은 2014년 7월 강진, 영암, 장흥의 공동발전을 위해 조직한 3군 상생협력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 중 하나다. 2014년 11월 서울 양재동 하나마트에서 첫 수도권 특판행사를 시작으로 2015년 4월 성남시 분당구청

광장에서 특판행사를 열어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장흥, 강진, 영암 군수는 ‘3군 상생협력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세종사무소 공동운영,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공동 스포츠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3개군은 대도시 장터를 2차례 개최해 1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공동으로 스포츠 대회인 2015전국 학교클럽 리그 왕중왕전을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강진군 등 3개 군은 지난 2월 이 같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상생나무 행복다자 인 사업’ 계획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제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장흥·영암 길을 닦아주는 지역행복생활권

HOPE PLUS

창조적인 지역발전,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Happiness Opportunity Partnership Everywhere
주민행복 제강
관용한 기회 제공
자율적 참여와 협업
어느 곳에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

- 지역행복생활권정책 고도화로 국민행복 체감시대 실현
-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성 제고
- 국민통합과 공동체이식 회복을 통한 선진한국 기반 확립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

지역발전위원회